

강진청자축제 지난해 2배 20만명 몰려 대성황

축제 10일간 관광지 방문객 51만8000명...전년비 91% 늘어 '반값 강진 관광' 등 효과...청자·농특산물 등 매출 67% 증가

'반값 관광'을 내 건 강진군의 대표 축제인 '52회 강진 청자축제'에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0만4000명이 몰렸다.

강진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구 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연 '52회 강진 청자축제'가 열흘간의 장정을 끝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강진 청자축제를 찾은 관람객은 모두 20만4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청자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은 인근 가우도와 마량향, 백련사 등도 찾았다.

축제 기간 강진 주요 관광지 방문객은 51만 8219명으로, 전년(29만4377명)보다 91% 증가했다.

청자 판매를 포함한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7% 늘었다. 매출액의 분야별로 보면 청자판매 3억 8655만7000원, 농특산물 4467만5000원, 먹거리 타운 2억3542만6000원, 강진한우촌 6389만5000원, 하멜촌 카페 2553만9000원 등 총 7억5609만 2000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청자 판매액은 전년보다 두 배 뛰었다.

세특에 마련한 강진한우촌은 시중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숯불구이와 상차림을 제공했다. 여기서 강진한우는 총 840kg 팔렸다.

올해 '반값 강진 관광'을 내건 강진군은 축제장에서 쓴 금액의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강진사랑상품권을 강진지역 안에서 쓰이도록 해 읍 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축제장에 마련된 체험행사인 장작 패기, 족욕 체험, 물레성형, 모래공예 등도 인기를 얻었다.

청자축제장과 강진을 아트홀에서 번갈아 열린 어린이 공연(브레드 이발소·신비아파트)에는 4650명이 몰렸다.

강진군은 올해 화목가마 옆 '관요매장'에 '명품 판매관'을 새로 만들어 민간요 업체와 청자 판매를 도왔다.

'민간 도에 업체 신제품' 전시회도 열어 관람객들의 수요를 맞췄다. 축제장 한가운데서는 '화목가마 소원태우기'를 펼치며 청자를 굽는 화목가마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불명 캠프'는 춘향과 다양한 먹거리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해 야외의 낭만을 선사했다.

고려인의 옷을 입고 축제장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행자'도 눈길을 끌었다. 친구, 연인, 가족 등 다양하게 참여해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진풍경을 펼쳤다. 축제장 중앙에 마련한 '놀래 무대'는 야간 방문



지난 3일까지 열흘간 열린 '52회 강진 청자축제'에 지난해 두 배에 가까운 20만4000여 명이 몰렸다. 청자축제 대표 행사인 '화목가마 소원태우기'. <강진군 제공>

객의 취향을 맞췄다. 강진군은 체육관과 궁정, 터미널, 축제장을 오가는 순환 버스를 하루 24번 운행해 교통 편의를 높였다.

올해는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백련사 동백축제'가 열렸다. 강진군은 올해 17개의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가 마련됐다.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라병영성축제가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축제를 위해 경쟁이 치열한 본격적인 봄철이 아닌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강진은 이른 봄에 축제를 시작했다"며 "강진은 알수록 매력 있고, 올수록 또 오고 싶은 곳으로,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병영성 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존엄한 죽음 준비하기 9일 화순서 '웰다잉 찾집'

죽음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데스 카페'(Death Cafe)가 오는 9일 화순에서 열린다.

바람(HOPE) 호스피스지원센터(센터장 임영창 박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남 제일요양병원 인근 화순 라들체비타 카페에서 '데스 카페'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데스 카페'는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Well-dying) 열풍이 불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데스 카페는 영국 등 유럽에서 시작됐으며, 국내에서 수도권에서 잇따라 열린 뒤 전남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 열린다.

이번에는 '웰다잉 찾집'이라는 이름을 붙여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죽음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대한 웰다잉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원도 참여한다.

우선 작은 공연을 연 뒤 '우아하게 나이 들기', '존엄한 죽음 준비하기',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경험 나누기' 등을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상담 시간도 마련됐다.

'갈등 없는 아름다운 상속 도우미'(이세형 세무사), '유언장 작성과 법률 도우미'(소병선 변호사), '노년기의 병권 생활과 호스피스 도우미'(지승규 원장)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방문자에게 차와 다과를 무료로 제공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전국대나무공예대전 융복합제품·실용디자인 부문 담양군 다음달 19~23일 접수

담양군이 생활 속의 제품을 새롭게 디자인한 대나무공예품을 주제로 '제43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을 개최한다.

전국 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은 융·복합 제품과 실용디자인 분야로 나눠 관광기념품, 생활소품, 인테리어, 사무용품 등을 출품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나무공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를 희망하는 이는 다음달 19~23일 이틀 간 한국대나무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택배 등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실물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공공시설사업소 한국대나무박물관(061-380-2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우수한 대나무 공예품을 발굴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kwangju.co.kr



함평군 관계자들이 4월 '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함평 엑스포공원 일대에 비올라를 심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 나비대축제 손님맞이 준비 한창

함평군이 오는 4월26~5월6일 열리는 '26회 나비대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축제는 '나비찾아 떠나는 함평 여행'을 주제로 11일간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함평군은 축제 분위기를 높이고 아름다운 시가지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엑스포공원 등지에 비올라 등 꽃을 심어 화단을 조성했다.

오는 4월까지 축제 준비를 위해 단계별 꽃단지를 조성하며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나비축제 관람을 위해 함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환하고 아름다운 함평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산뜻한 봄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라 등 꽃을 심어 화단을 조성했다.

오는 4월까지 축제 준비를 위해 단계별 꽃단지를 조성하며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나비축제 관람을 위해 함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환하고 아름다운 함평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산뜻한 봄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성군 고령 운전자 23명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장성군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23대를 대상으로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차량에 차선이탈, 차량 전방 충돌, 보행자 근접 경보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올해 장성군은 모두 23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설치 비용 5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으로,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자기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군민에 한한다.

오는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영업용 개인차량이 1순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운전자가 2순위,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신미약자 또는 보호자는 3순위다. 4순위는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이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소정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지역 내 가맹업체 이용 때 5~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생계유지나 병원 이용 등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에게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사업'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임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3월호

2024년 2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뜻과 함께 남도유랑 담양 여행

대숲체험 예술충전 용마루길

죽녹원~관방재림~메타세쿼이아 산과 물, 하늘 어우러지는 담양호 '용마루 길'

담주 다미담 예술구 | 메타 프롤방스

고재구전통쌀엿+한복차 환과 | 송명갤러리카페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① '작은 네모' 속의 설렘 담양유료박물관

호남의 누정②-광주 최가정

충장공 김덕령의 의와 충이 깃든 누정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손레기 '번두리와 언저리'③

조선대, 문명란 시인과 이철규 열사

예향 초대석

'시간의 층' 읽는 도시문화학자 김시덕

"낮설게 보면,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③

전남의 골목 여행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⑥ 문화 기부로 차려진 예술 성찬 더 브로드와 LACMA

해외문화기행③-미국 샌디에이고 군함 박물관의 위용과 여유로운 해변의 낭만

예향의 예술가와 친구들④ 대구에서 LA 들고 돌아 다시 한국으로 공명한 화가, 곽훈

오동진의 '전지적 시대의 시점'

돈 되는 한국 시장 직접 노렸다 미드 '성난 사람들' 뜬 비결